

지역사(地域史)와 함께 한 근대교육기관 Modern Educational Facilities with Local History



김 태 영 / 청주대 건축학과 교수
Kim, Tai-Young / Professor, Cheongju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tecture
Taiplan@cju.ac.kr

1. 서론

2012년 6월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근대교육기관은 전국에 걸쳐 60여건에 이른다. 이는 2008년 12월 필자가 조사 통계로 잡은 이후 변함이 없는 수치이다. 최근 5년간 근대 문화유산이 동산 위주로 등록됨에 따라 교육시설은 1건도 추가 등록되지 않았다. 50년 경과된 건축물이 등록문화재의 대상인 관계로 이제부터는 1960년대 이후에 신축된 수많은 건축물도 문화재 등록이 가능하여 이 시기의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요구되고 있다. 교육시설 역시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화재 지정 60여건 중 충청지역에 현존하는 근대교육기관은 대전광역시 2건, 충청남도 3건, 충청북도 6건 총 11건이다. 문화재 종목별로는 문화재자료 2건, 시도유형문화재 1건, 등록문화재 8건이다. 교육시설의 종류별로는 교사 4건, 강당 6건, 사택 1건이다. 4건의 교사 중 2층의 '삼성초등학교 구교사', '내덕동 청주상고 구분관'은 적벽돌조이고, 단층의 '옥천 죽향초등학교 구교사'는 목조이며, '괴산중학교 구분관'은 충청지역에서 보기 드문 유일한 석조 교사이다. 6건의 강당은 대부분 적벽돌조 1층 건축물이나, 1920년대 지어진 '주성초등학교 강당'(주성교육박물관)과 '청원부강초등학교 강당'은 목조 1층이다.

'강경화교학교 교사 사택'이 교육시설로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주거시설로 등록되어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청주탑동양관'(시도유형문화재133호), '공주 중학동 선교사가옥'(등록문화재233호), '오정동 선교사촌'(시도문화재자료44호), '대전 선화동 구사범학교 교장사

택'(등록문화재169호) 등이 그것이다.

이들 교육시설은 그 쓰임새에 따라 예전 용도를 그대로 지니고 있는 지속형과, 용도를 달리하면서 전면적인 개보수를 행한 전용형(轉用形)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속형으로는 '내덕동 청주상고 구분관'과 '괴산중학교 구분관'이 있으며, '강경 중앙초등학교'와 '대성 여자중학교 강당'은 각각 강당과 체육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 대부분의 건축물들은 박물관과 전시시설로 용도변경(conversion)되었다. '삼성초등학교 구교사'와 '죽향초등학교 구교사'는 개별 교실이 하나의 복도에 의해 연결되어 개개의 전시실을 관람할 수 있는 반면, '대전여중 강당'과 '주성교육박물관', 그리고 '홍성고등학교 강당'은 하나의 공간 내에 모든 전시방식과 동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고에서는 이들 중 등록문화재이면서 현재까지 교사로 사용되고 있는 충청지역의 초중고 교사 3사례를 대상으로 지역의 근대사현장과 함께 한 연혁내용, 건축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역 유지의 배움터 옥천죽향초 구교사

옥천 죽향초등학교는 1909년 사립 창명보통학교로 개교하여 1910년 옥천 공립보통학교로 개편하였으며, 1941년 옥천 죽향공립국교로 개칭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교사의 건물 신축내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옥천군의 자료에 의하면 1936년 현 자리에 79.5㎡ 신축, 1977년 237.5㎡ 증축, 1985년 264.46㎡ 증축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건립 당시의 '옥천 죽향초등학교 구교사'의 규모를 추측할 수 있다.

표 1. 대전, 충청지역 문화재 지정 근대교육기관 현황(2012년 6월 현재)

| 구분 | 번호 | 종목 | 명칭 | 위치 | | | 건립 년도 | 건물소유자 | 연면적 (㎡) | 구조 | 규모 | 현용도 |
|----|-----|----|------------|----|-----|---------------|----------|-----------|------------|-----|----|-------|
| | | | | 도 | 시군구 | 동리 | | | | | | |
| 자료 | 50 | | 삼성초등학교교사 | 대전 | 동구 | 삼성동 113-1 | 1938 | 대전광역시교육청 | 2052 | 벽돌조 | 2층 | 박물관 |
| 자료 | 46 | | 대전여중강당 | 대전 | 중구 | 대흥동 418-1 | 1937 | 대전광역시교육청 | 360 | 벽돌조 | 1층 | 대전갤러리 |
| 등록 | 6 | | 내덕동청주상고구본관 | 충북 | 청주시 | 상당구내덕2동 261 | 1936 | 청석학원 | 1,566 | 벽돌조 | 2층 | 교사 |
| 등록 | 350 | | 주성교육박물관 | 충북 | 청주시 | 상당구영동48-1 | 1923 | 충청북도 교육감 | 400 | 목조 | 1층 | 박물관 |
| 등록 | 351 | | 대정여자중학교 강당 | 충북 | 청주시 | 상당구 수동 396-1 | 1954 | 학교법인청석학원 | 462 | 벽돌조 | 1층 | 체육관 |
| 유형 | 215 | | 청원부강초등학교강당 | 충북 | 청원군 | 부용면 부강리 488-1 | 1926 | 충청북도교육감 | 99 | 목조 | 1층 | 미사용 |
| 등록 | 57 | | 옥천죽향초등학교교사 | 충북 | 옥천군 | 옥천읍 문정리 83 | 1936 | 충북옥천교육청 | 264 | 목조 | 1층 | 전시관 |
| 등록 | 354 | | 괴산중학교구본관 | 충북 | 괴산군 | 괴산읍 대사리 165 | 1949 | 충청북도 교육감 | 725 | 석조 | 1층 | 특별교실 |
| 등록 | 60 | | 강경중앙초등학교강당 | 충남 | 논산시 | 강경읍 중앙리 89 | 1937 | 충청남도논산교육청 | 445 | 벽돌조 | 1층 | 강당 |
| 등록 | 272 | | 홍성고등학교강당 | 충남 | 홍성군 | 홍성읍 대교리 | 1943 | 홍성고등학교 | | 벽돌조 | 1층 | 학교역사관 |
| 등록 | 337 | | 강경화교학교교사사택 | 충남 | 논산시 | 강경읍 황산리34-1 | 1956 | 논산시 | | 목조 | 1층 | 미사용 |

목구조 형태의 구교사는 우리나라 근대초기 지방 교육 기관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3칸 교실에 박공지붕 형태, 목재비늘판벽 마감 등으로 본관 동과는 달리 목조 간이식 건물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축 당시의 원형을 대부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 주민과 졸업생에게는 향수어린 추억으로 남아 있다.

본 건물은 건축적 가치뿐만 아니라 옥천 지역의 인물인 정지용 시인과 육영수 여사, 그리고 지역유지들의 배움터라는 장소적 가치를 더하고 있다. 더군다나 죽향초등학교 주변의 구읍(舊邑) 일대에는 해방이후 수많은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배출한 유서 깊은 장소이다. 지금도 이 주변으로 옛 가옥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정지용 시인의 생가, 육

영수 여사의 생가와 함께 역사교육 탐방로로서의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다.

3. 지역산(地域産) 돌집 괴산중 구분관

괴산중학교 구 본관의 건물형태는 기다란 장방형으로써 전체는 편복도형으로 방화벽에 의하여 둘로 나뉘며, 교실 한 개의 크기는 9×9m 모듈에 가까운 치수를 사용하고 있다. 전면의 창은 동일한 크기와 모양으로 연속적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건축재료인 화강암은 거친돌 바른층 쌓기로 되어있다. 주요 석재치수는 280×300×600mm를 기본으로 다양한 크기로 나뉘어 있고, 돌쌓기의 줄눈은 17-27mm의 평줄눈으로 되어있다. 지붕구조는 양식지붕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왕대공지붕틀로 이루어졌고, 목조와 벽돌조로 일관된 충청북도 내 학교기관 중 유일한 화강석 석조건물이다.

본 건물은 해방직후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 건립된 충청북도내 최초의 근대식 학교건축으로, 건축용 재료로서의 석재의 채취 및 조달이 충청북도 지역 내에 소재한 괴산군 소수면 옥현리와 음성군 원남면 주봉리의 경계인 돌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당시 한국인 석공기술자들의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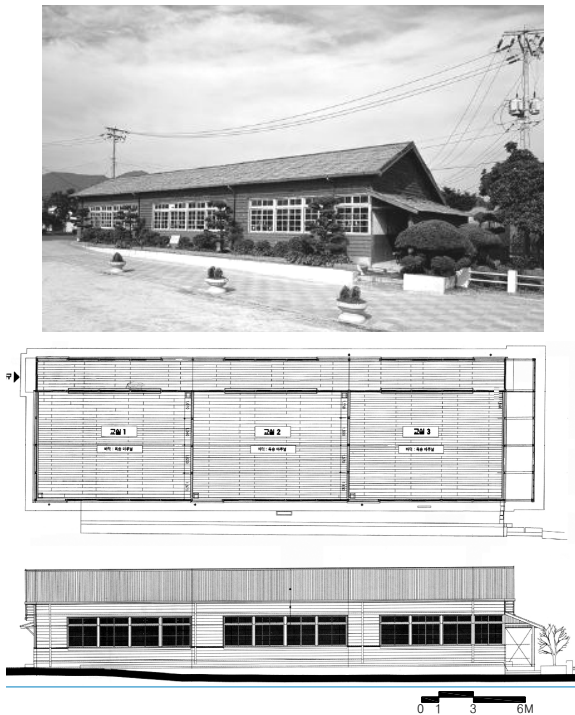


그림 1. 옥천죽향초등학교 전경 및 평입면도



그림 2. 괴산중학교 구분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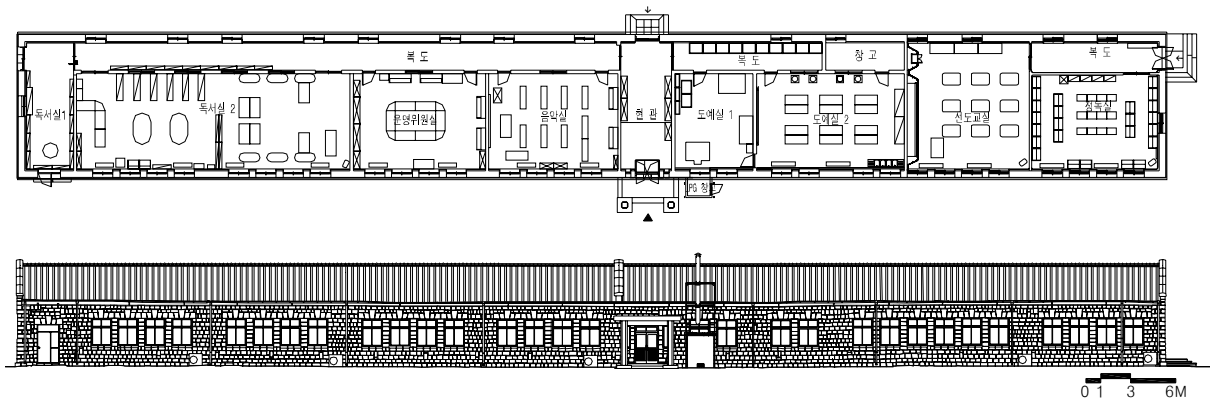


그림 3. 괴산중학교 구 본관 1층 평면도와 정면도

가공과 축조술 뿐만 아니라 지붕구조에 있어서 목조 트러스 구법 등 지방의 한국인 기술자 스스로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데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괴산중학교 동문회에서 이 건물이 괴산군내 전 주민, 독지가의 성금으로 건립비를 충당하였다는 데에서 육영 정신을 계승해야겠다는 것, 현존 도내 유일의 석조 교육기관으로 문화재 차원에서 영구보존해야겠다는 것, 그리고 13,000여 동문들의 배움의 요람 및 산실이란 점에서 대수선 후 다목적 특별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괴산중학교 구본관은 화강암의 수직 줄눈에 난 균열현상으로 말미암아 훼손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거친돌 막쌓기에서 모르타르의 사춤이 치밀하지 못함과 거친 다듬으로 불규칙하게 쌓여 상부의 하중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함에 따라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균열, 침하, 줄눈 부위로의 누수 및 물의 침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의 틀 교체는 물론 균열 및 사춤 몰탈 누락 부분을 중심으로, 보수시 돌의 상부하중에 견디고 하중을 아래쪽으로 분산시켜줄 수 있는 재료를 선정하고, 접착성이 좋은 균열방지용 혼화재를 혼합하여 석재면 깊숙한 부분까지 채워 넣도록 하며, 줄눈의 색상을 최초의 색상에 가깝게 모르타르 자체의 색을 유지하는 등의 보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조적술의 현장 청주상고 구본관

청주 상업고등학교는 교육도시 청주지역에서 지방사학의 대표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태동하였다. 설립자 김원근 선생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성학원을 운영하였으며, 해방직 후에는 한수 이남에서 최초로 4년제 청주대학(교)을 설립한 분이기도 하다. 본 건물은 1935년 3월 26일 설립인가를 받은 후 6월에 설계를 완성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936년 10월 1일 정식 준공을 하였다. 시공은 일본인 건설업자 다나하시가 공사비 5만원에 맡았다고 한다. 적벽돌 2층의 본 건물은 청주지역에서 적벽돌의 생산 및 축조기술을 본격적으로 보급시키면서, 이후 공장·교사·교회 및 주택의 신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평면형식에 있어서, 중앙현관을 중심으로 좌우 양단에도 출입현관을 두고 있는데, 현관의 방향을 좌우측면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을 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현관을 중심으로 좌측 서쪽 편으로 30×25자 규모의 교실 3개를 배치하고 있으며, 우측 동쪽 편으로는 교무실과 관리실을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복도는 10자 크기이다.

전체적인 외관은 전시기에 비하여 매우 단순하게 처리하고 있다. 전시기에 교사 건축의 상징으로 사용하였던 박공면은 정면에서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오히려 후면 돌출된 세 곳의 계단실을 박공면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전의 외관 모습이 후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앙현관에는 가운데 기둥 두 개를 수직으로 올리고, 상부에서는 거친 테라조 마감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체 기단부와 중앙현관 전면의 좌우벽체에 진한 고동색 스크래치 타일을 사용하여 건물 전체적으로는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으며, 중앙현관에는 권위적 성격을 주고 있다. 구조형식에 있어서, 적벽돌 건물의 1, 2층 외벽체 모두 1.5B 쌓기이다. 교실과 복도를 구성하는 주 건물에는 쌍대공트러스가 사용되었고, 후면으로 돌출된 세 곳의 계단실은 왕대공트러스가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1994년 후면에 5층 교사를 증축하고서는 특별교실 및 전시관으로 이용되다가, 2002년부터 교명을 '청주대성고등학교'로 변경하면서 부터는 다시금 교사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때 등록문화재 제6호로 지정되었다. 2001년 4월 교사의 바다널(백두산 육송), 창문 및 창틀을 교체하였고, 2003-2004년에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지붕 및 벽체수리공사를 하였으며, 2008년에는 건축물 외벽 인방 시멘트 바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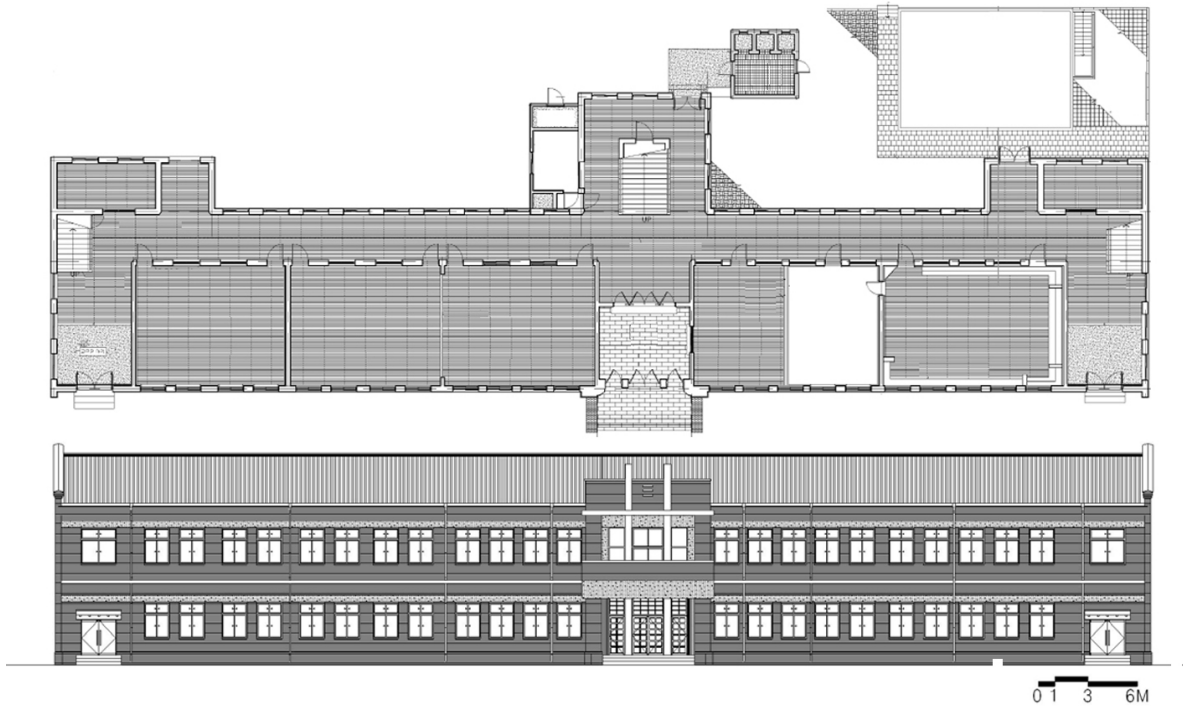


그림 4. 내덕동 청주상고 구 본관 1층 평면도와 정면도



그림 5. 내덕동 청주상고 구본관

보수를 하였다.

본 건물과 바로 인접한 위치에 이와 유사한 적벽돌 건물군들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청주대학교 원 캠퍼스에 있는 1950년대에 신축된 건물들이다. 마침 바로 인접한 청주대학교 구 법대 건물이 역사 교육관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하니, 그야말로 교육의 고장 청주지역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역사적인 근대사 현장을 기대하여 본다.

5. 결론

충북지역의 근대교육기관 중 현재까지 교사로 사용되고 있는 3개의 교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근대교육기관들은 대부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익

히는 배움터이면서, 동시에 지역공동체의 중심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옥천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역시 지역의 유지를 배출한 산실로서 지금까지도 옥천 구읍의 향수어린 상징적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근대교육기관은 지역에서 생산된 자재를 갖고서, 지역의 기술자들이 새로운 건축기술을 보여준 무대이기도 하였다. ‘괴산중학교 구본관’에서는 해방직후 지역에서 채취 및 조달한 석재를 가공하여 축조하였으며, ‘내덕동 청주상고 구본관’에서는 적벽돌을 직접 생산함은 물론 조적술을 지역에 본격적으로 보급시키면서, 지역의 건축생산기술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참고문헌

1. 근대건축문화재 현장답사보고서, 청주대 유재 근현대건축사연구실, 2009. 3
2. 우남식·김태영, 벽돌조 건축물 외벽체의 유지 관리를 위한 훼손이력도 작성,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제13권 3호, pp.19-27, 2011. 9
3. 괴산중학교 구본관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8. 11
4. 내덕동 청주상고 구본관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9. 12
5. 옥천 죽향초등학교 구교사 기록화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4. 11